

유대인들의 멸망과 최후승리

주후 70년 로마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로마 병사의 발아래 짓밟히는 애잔한 이스라엘 여인의 모습을 조각한 금화를 발행했었다. 2차 대전 중 6백만 유대인의 학살 현장을 지휘했던 한 독일 장교는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 유대인들의 마지막 소원이 로마시대의 모의금화를 손에 쥐고 죽는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수난의 세월이었다.

주후 70년 이스라엘 멸망이후 예멘에 이주한 유대인은 2천년 가까이 문명 세계와 격리된 채 살아 왔다. 한데 어느 날 풍문으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자기네 조국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2천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안 순간 4만3천명의 유대인들은 냄비 쪽과 명석 하나 맡아 메고 모든 재산을 버린 채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마치 버스 정거장에서 다음 버스 기다리듯 2천년을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시오니즘이다 (이규태. “시오니즘.” 조선일보. 1997년 8월 30일자 칼럼 참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세스테르티우스 주화(AD 71)

로마가 유대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듬해에 주조된 청동 세스테르티우스(Sesterterius)로서 전면면에 월계관을 쓴 베스파시아누스의 두상을 새겼고, 뒷면에 IMP CAES VESPASIAN AVG P M TR P P P COS III (임페라토르 캐서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대제관 호민관 국부 재상관 3회)라고 새겼다. 뒷면에 대추야자나무를 중앙에 새겼고, 우측에 슬픔에 잠긴 유대인 여성 포로(노예)를 좌측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호신봉 단검(parazonium)을 왼쪽 발을 투구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새겼다. 그리고 뒷면에 IVDAEA CAPTA(유대 정복되다)라고 새겼다. 중앙 하단의 SC는 Senatus co. n. s. ultio의 약자이며 '원로원의 법령에 따라'란 뜻으로써 백성이 순종해야 할 제도의 권위를 보여준다(벤진 2:13).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정복기념 은화(AD 69-70 데나리온)

전면면에 월계관만 베스파시아누스의 두상을 새겼고, 뒷면에 IMP CAES VESPASIAN AVG(임페라토르 캐서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대추야자나무 곁에서 베일을 쓰고 주저앉은 양팔이 뒤로 묶인 채로 슬픔에 빠진 유대인 여성(유대를 상징)을 새겼고, 그 밑에 IVDAEA(유대)라고 새겼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정복기념 금화(AD 71)

로마가 유대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듬해에 주조된 금화로서 전면면에 월계관만 베스파시아누스의 두상을 새겼고, 뒷면에 IMP CAES VESPASIAN AVG(임페라토르 캐서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왼팔을 턱에 댄 채 슬픔에 빠진 유대인 여성(유대를 상징)을 전라꽃과 함께 새겼고, 그 밑에 IVDAEA(유대)라고 새겼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정복 기념주화(데나리온, AD 69-79)

전면면에 월계관을 쓴 베스파시아누스의 두상을, 뒷면에 IMP CAESAR VESPASIANVS AVG(임페라토르 캐서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베일을 쓰고 주저앉아 왼팔을 턱에 댄 채 슬픔에 빠진 유대인 여성(유대를 상징)을 전라꽃과 함께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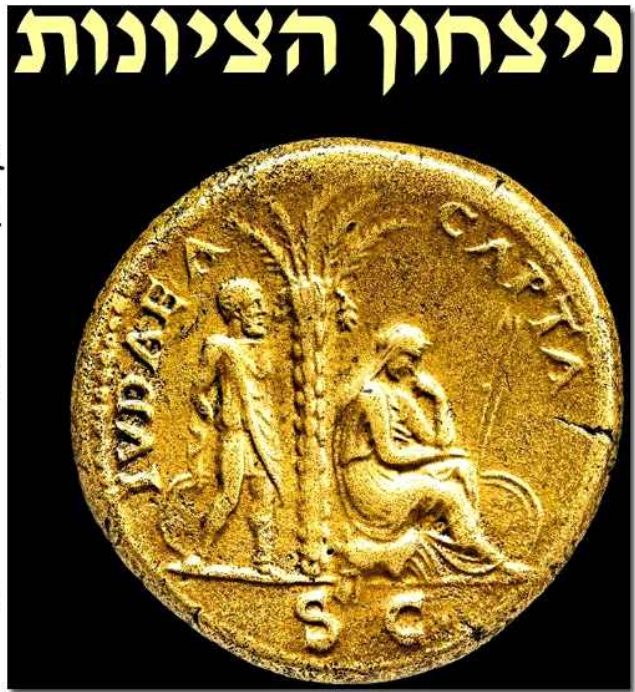
티투스의 유대정복 기념주화(데나리온, AD 79)

전면면에 월계관을 쓴 티투스의 두상을, 뒷면에 IMP T CAESAR VESPASIANVS AVG(임페라토르 티투스 캐서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양손이 뒤로 묶인 채로 무릎을 꿇린 유대인 전사를 전라꽃과 함께 새겼고, 뒷면에 TR POT VIII COS VIII(호민관 8회 재상관 8회)라고 새겼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정복기념 주화 뒷면(AD 71).**

로마가 유대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듬해에 주조한 것으로서 대추야자나무 사이에 양손이 뒤로 묶인 채로 선 유대인 전사와 바닥에 주저앉아 베일을 쓰고 왼손을 턱에 괸 채 슬픔에 빠진 유대인 여성 포로를 새겼다. 둘레에 IVDAEA CAPTA(유대 정복되다)와 SC(원로원의 법령에 따라)를 새겼다.

상단의 히브리어는 '시온니즘의 승리'(Victory of Zionism)란 뜻으로써 유대인들은 종종 이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의 최후 승리 곧 시온니즘의 승리로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인 이스라엘 건국(1948년 5월 14일)을 말하곤 한다.



1962년 9월에 제작된 이스라엘 건국 기념 메달
전면에 아이와 여인, 대추야자나무, 나무를 심는 남자를, 원둘레에 ISRAEL LIBERATED 1948(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됨)이라고 새겼다. 뒷면 중앙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주후 71년에 발행한 주화 뒷면으로서 대추야자나무를 중앙에 새겼고, 우측에 슬픔에 잠긴 유대인 여성 포로를, 좌측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호신용 단검을 왼쪽 발로 두구 위에 불러놓은 모습을 새겼다. 원둘레에 IVDAEA CAPTA(유대 정복되다), SC(원로원 법령에 따라)라고 새겼다. 또 메달 둘레에 JUDAEA CAPTIVE 70(주후 70년 유대 사로잡힘)이라고 새겼다.

그리스도교 예배와 삶은 종말론적이다. 그 속에는 감사, 기념, 기원, 선취,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마라나 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와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미래종말적인 기원의 의미가 담겨있지만, 이 아랍어를 ‘마란 아타’라고 읽으면, ‘우리 주님 오셨다’가 되어 현재(실현된)종말적인 감사와 선취가 된다. 이 ‘이미’(Already)와 ‘아직 아니’(Not yet) 사이에는 환난과 역경이 있다(롬 5:1-11).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정복을 기념하여 주후 71년에 발행한 주화들의 뒷면에는 유대인 포로들이 새겨져 있다.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 유대인들의 마지막 소원이 유대멸망이 새겨진 로마시대의 그 주화들의 복사본을 손에 쥐고 죽는 일이었던 것이나 어느 날 풍문으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자기네 조국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2천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안 순간 4만3천명의 유대인들이 냄비조각리와 명석 하나 맡아 메고 모든 재산을 버린 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던 힘(power), 마치 버스 정거장에서 다음 버스 기다리듯 2천년을 기다리게 한 승리(victory)의 원동력은 시온니즘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원동력도 현재종말(시작된 혹은 실현된 종말)의 누림과 미래종말의 끊임없는 기원에 있다.



이스라엘 건국 10주년 기념메달(1958년)

전면에 대추야자나무 사이에 희망의 상징으로 아이를 들어올린 여성과 나무를 심는 남성을, 둘레 상단에 '이스라엘 자유'라고 새겼고, 하단에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자유 10년, 5718'(AD 1958)이라고 새겼다. 뒷면 중앙에 대추야자나무 사이에 절망의 상징으로 로마황제 베스파시아누스와 유대인 여성 포로 및 '유대 사로잡히다. 원로원의 법령에 따라'를 새겼고(AD 71년 발행 주화), 바깥 둘레에 사로잡힘의 상징인 쇠사슬을 새겼으며, 하단에 히브리어로 '유대 흠어짐, 3830'(AD 70)이라고 새겼다.



이스라엘 건국 10주년 기념메달(1958년)

전면에 대추야자나무 사이에 희망의 상징으로 밀단을 허리에 낀 여성과 팥이를 어깨에 맨 남성을, 둘레에 '이스라엘 자유, 예루살렘'이라고 새겼고, 히브리어로 바깥 둘레 상단에 '이스라엘의 자유 10년', 하단에 '5718'(AD 1958)을, 그 사이에 다윗의 별 10개를 새겼다. 뒷면에 대추야자나무 사이에 절망의 상징으로 양손이 뒤로 묶인 유대인 포로 남성과 슬픔에 잠긴 유대인 여성 포로 및 '유대 사로잡히다. 원로원의 법령에 따라'를 새겼고, 히브리어로 바깥 둘레 상단에 '유대 흠어짐', 하단에 '3830'(AD 70)을, 그 사이에 사로잡힘의 상징인 쇠사슬을 새겼다.